朝鮮日報

京城府三角町七一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電話 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太平洋會議와 日英米의 海軍力

太平洋의 中心勢力이 今後에 依하야 또한 다시 日英米의 海軍均衡에 依하야 支持될 것은 이미 國際政局에 表現되는 事實에 照하야 더욱 明白하도다 歐洲戰前의 英獨 二國이 世界에 對하야 그 國運을 進展코져 할 때 商工的 利害衝突은 遂히 人類史上에 未曾有의 大慘事를 現出하얏도다 卽 千九百十三年의 當時에 比較的 大海軍力을 有한 英吉利도 獨逸에 向하야 海軍協定案을 提出하얏스나 萬若 獨逸에 賢明한 政治家가 잇섯슬 것 갓흐면 此를 當然히 公平한 協調로써 그 解決의 曙光을 實케 하얏슬 것인데 그러치 못하고 事境 그것을 兩國人民의 慘血과 干戈로써 結案을 成하얏도다

然則 今回의 太平洋 會議에 臨한 三國 關係도 亦是 當時의 英獨과 如한 點이 非但 一二에만 止치 못할 것이라 太平洋의 周圍에 包含된 三國의 政治的 軋轢과 經濟的 競爭은 그 運命을 賭하기 不難한 事實에 遭遇될 것은 吾人의 贅言을 俟치 안이하야도 是認할 바이라 問題의 中心에 가장 緊要한 地理的 關係로부터 日本의 中國問題와 滿蒙으로부터 朝鮮의 國境防衛와 西伯利에 亘한 極東問題가 最要를 占한 그 外에도 南洋의 委任統治와 加州의 排日問題가 包含되얏고 米國의 立場으로 見하면 歐洲大戰의 前後에 在하야 物質的 精神的으로 平和에 貢獻코져 하야 그 努力이 적지 안이함을 不拘하고 國際聯盟에서 그 主義와 主張이 다만 空文과 辭令에 지나지 못함을 作하야 海洋自由의 抗議로써 何時던지 英國의 魂膽을 一蹴케 하는 同時에 極東經營에 絶對的 障碍라 할 日英同盟을 制肘코져 하야 먼저 南洋의 沿岸으로부터 比島保護線을 支持할 것이요 英領各植民地의 貿易針路를 遮斷하야 市場爭奪의 經濟戰略을 試하는 所以에 不外할 것이며 英國은 從來의 海軍의 優勢를 持하고 世界를 睥睨하얏스나 그 唯一의 强敵인 獨逸도 海上王으로 自任自重하든 傳統的 征服된 後에 그 餘勢의 不振은 不得已의 事實이라 然이나 그 國命의 消長에 係한 海軍力의 要求는 日米의 地位보담도 더욱 深切한 意義가 存在함이요 大抵 太平洋岸 散在한 無數의 屬領과 中國의 西南沿岸 長江沿岸의 經營에 關한 極東問題이던지 또는 印度關係로 하야금 日英提携의 必要가 生하얏다 함은 이미 宿題에 잇슬 것이어니와 그 自治領인 濠洲와 加奈陀와 新西蘭 等은 貿易航路 運命을 維持코져 하며 南米市場의 勢力을 掌握하야 英米의 經濟的 爭鬪를 暗示하는 一大方針은 總히 海軍力의 如何에 依할 것은 目下 然한 事實이라 하노라

그러면 太平洋 請問 三國의 海軍力은 制限함이 可能性이 有할가 하면 此는 가장 疑問이라 할 것은 最近의 海軍休勢를 導하건대 米海軍 「데로비이」 氏는 華盛頓會議에서 米國의 海軍計劃은 一時 中止할가 否할가 하든 問題를 否認하야 그 造艦의 延期나 中止는 決코 無하다고 斷明하얏도다 그 後에 英國首相 「루어조지오」 氏가 華盛頓會議를 際하야 英國은 戰艦新造計劃을 中止치 못한다는 聲明이 有한 것을 보건대 그러면 이것이 엇지 英米의 經費의 聲明이 안이라 할 것이며 또한 日本에서도 八八艦隊의 計劃을 中止치 안이함은 勿論이라 할지어다 그리면 今回의 會議는 一步를 進하야 海軍力의 擴張이 될다는 것이 可할 것이요 決코 그것을 縮少하야라던지 制限이 域에는 至케 不能할가 하노라 그러나 最近의 日英米의 海軍力 比較表를 見하면 左와 如하도다

國別	戰艦	同建造中	巡洋艦	同建造中	其他現在艦數
日本	一三	八	一八	二九	九九
英國	五五	一	一〇	四	[illegible]六
米國	三三	一〇	三〇	六	[illegible]

그 艦隊의 現在와 將來의 勢力을 較하야 三國의 軍力을 想像할 것 갓하면 英國이 오즉 第一位에 居하얏고 그 第二第三位에 잇는 日米의 關係가 더욱 軋轢의 狀態를 現하는 理由도 何에 由하야 그러할 것인가 하면 英吉利도 戰後의 內國問題와 經濟의 活에 汲々함을 暇치 못하는 眼에 미양 危險한 趨勢도 日米의 强力이라 하야 此를 如何한 方策으로던지 頓挫하지 안으면 自國의 安寧保全에 大影響될 것으로 思하야 國際的 秋波行動을 試함이 그 엇지 無意味라 할 것이며 또는 漁父의 利를 希望하는 者가 안이라 云치 못하리라 그러함으로써 日英同盟의 更新된다 함을 伴하야 太平洋會議가 擡頭되는 것이 곳 以上의 事實을 證明하는 바이라 하야도 過言이 안이로다 然則 萬若 太平洋會議에서 眞正한 平和的 方針을 取코져 한면 米國의 有名한 平和論者 「지요단」 博士의 主唱과 갓치 現代各國民이 造艦의 負擔에 無上의 苦痛이 업지 못할 터이라 今後에 日英米의 海軍制限은 그 範圍가 더욱 擴大케 될 慮가 엇더한 問題로부터 엇던 한 程度에 至할는지 不知하거니와 理想的 解決을 求하면 太平洋에 在한 아반니시 行할 것은 列强의 武裝을 解除함이 最善의 方略이라 하얏스니 이 엇지 妄言이라 하리요

中國各省自治法內容 (三)

現在 各省의 自治運動은 漸次 發展하는 者와 一時 停頓된 者와 開始코자 하는 者 等이 有하야 且 狀態가 頗히 複雜하나 浙江省 現在 治動 右各方面에 對하야 好影響을 及할 은 明白하다 既히 六月四日에는 永詳督軍의 自治에 關한 通電에 依하야 不少한 反響이 有하얏다 最後에 自治運動下에 在한 各省의 現況을 極히 簡單히 述하야 中國各省自治의 將來를 卜하는 一參考에 供코지 하노다

四川省 四川은 自治를 唱한 後로부터 九個月을 經하얏다 最初 省議會가 自治를 提唱하야 五月一日에 僅히 憲法會議組織法案 草案하얏스나 制憲機關의 問題로 進行에 困惱하야 今至 第三讀會 通過함에 至치 못하얏다 且 內部가 謂政客派、政府派、兩派를 始하야 多數로 派分된 結果로 內訌이 常起하야 容易히 決치 못하다 又 全川自治聯合會 操縱하던 前總司令 熊克武氏가 失脚하야 久히 省長을 兼하고 以來로 一原因이나 現에 總司令 劉湘氏가 自治促進의 意見으로 以前에 提出한 臨時政府組織綱要 臨時政府組織案은 制憲과 先後를 爭하야 決치 못하고 省議會도 尙히 召集되기에 制憲問題가 停頓되야 自治이나 官治이나 함에 對하야 疑言이 續出함으로 其成功은 當分間 望키 難하다

湖南 此省은 何如間 自治의 先驅者인 故로 旣히 本年 一月十日에 總司令 趙恒惕氏가 實地下에 憲法起草員會를 設하고 三月二十日에 省議會를 開하야 半個月間에 此 起草를 終了하얏다 四月下旬에는 憲法審査會가 開하얏스나 省議會는 以數의 紀質、省長의 權限及 憲法會議組織法案의 改正問題로 審査員間에 意見이 衝突이 生함으로 此를 調停하기 爲하야 熊希齡氏는 名譽會長으로 選擧하고 湖南으로 招來하얏스나 效果가 無하고 遂히 中路에 審査員 四十六名이 辭職하기에 至하야 今後 審査를 續行할지라도 最後에 人民投票에 附할 後 憲法이 公布될 터이故로 湖南은 各路地方을 代表하는 此等 辭職委員과 和解치 안이하야는 限 憲法은 成立할 希望이 無하야 今日의 狀態에 止하야 和解도 殆히 絶望에 在하다 從하야 何日에 公布될지 豫想하기 不能하다 現在 湖南은 三地方으로 分爭하야 자못 强敵과 憂心을 有한 者인데 湖南將來에 對하야 深憂할 바가 多하다

雲南 唐繼堯氏가 自治를 實行한 後로 省議會도 縣郡自治法案 公布케 하고 一方으로는 昨年末에 省憲法制定籌備會를 設하야 民間에는 民法 進行을 組織하고 其實現을 促進하는 政治家 雲南에 歸하야 援助를 求 하야 五月末에 僅히 雲南省自治根本法 籌備章程 二十一條를 制定하고 總司令 顧品珍氏는 此를 許可하야 公布하얏다 此로 湖南 模倣한 者이나 其後 自治根本法 起草에 就하야는 오즉 消息이 無하다

貴州 貴州省議會는 本年四月에 省憲制定 省議會의 通過를 發하얏다가 更히 五月二十一日附로 民間의 諸團體와 共히 各省聯合하야 自治根本法을 起草하얏다

赤露의 人質日記

露國日本文學士 「에리세에푸」

干涉說과 歐洲共產 主義革命의 希望 (四)

五月十四日에 赤軍의 宣誓가 有하얏다 赤軍이 組織된 以來 如何한가 云하면 最新式으로 獨逸을 模範한 者이다 各聯隊에는 三中隊가 有하다 士官이 稀少하고 聯隊長이 되지 他士官도 不足하야 勞農政府는 彼等에게 對하야 信用키 難하다 又 兵卒에 對하야도 過信키 難하므로 過激派 革命委員을 各聯隊와 師團에 監督하기 爲하야 配置하얏다 其施政官은 共產主義者인 故로 何時던지 士官의 勞農政府에 對하야 忠實與否를 監督한다 勞農政府는 翌年 正月에셔지 二百萬人의 陸軍을 組織하다고 氣焰을 吐하얏다 戰爭에 反對하던 社會革命黨과 左派의 「부러스도、리모우스크」의 諸派도 一時 過激派와 相應하얏스나 時로부터 勞農政府와 平和한 解변은 實로 資本的 國家主義의 政府와 勝和한 故로 革命의 理由가 된다

八月三十日에 新聞紙가 發賣禁止되야 世上의 消息이 寂々하다 對하야 其內容을 暴露하고 且 今回에 赤軍을 組織함은 軍事主義로 되야 이는 復路됨이라고 勞働者와 農民間에 宣傳하얏다 何니 外지나 勞農政府가 此를 默然看過할는지 余는 自思自疑하얏다 友人의 家에 來하야 「어던가」 君은 南露로 往치 안이하랴는가 困難하나 物價가 騰貴하고 食料品이 益々 缺乏하야 多少 困難하나 거듭 君도 되니 「참 그러하겟지」 多少 困難하나 南方으로 往하면 食料品이 缺乏치 안코 圖書館도 無하고 大學校도 無함을 勉强하기 困難하나 그러나 何時代가 來할지라도 余는 旣히 稅主의 者가 된 故로 何等의 念慮가 無하다 하고 笑하얏다 「君은 人質이라 何가 心配할 것이 有한가」 余를 拘引하는 可能한 것이 안인가 云하다 「人質은 余를 拘引치는 안이하것」 時에 余는 同하야 何國에 拘留되는지 余는 南露나 西伯利에 往코 外國으로 往하야 모든 困難한 境遇를 면할 것을 生覺하얏다 自己의 學問으로 生活하게 될 것이라

政府의 通信은 少毫도 信用키 難하다 其代로 彼等은 獨自의 進行과 其勝利한 事는 善히 發表함으로 도 人이 皆 不平을 鳴하다 政府新聞에는 變更된 事를 記載치 안니함으로 人을 逢할 마다 彼此의 所聞을 問하게 되얏다 又 六月二十日에 新聞紙 發賣禁止 法令을 發表한 張本人 「오로다두스키」 施政官을 暗殺한 事가 發生하얏다 「오」 施政官은 往하면 近地에 在한 工場에 往하야 勞働者에게 演說하고 歸하는 道에 其乘한 自動車에 故障이 有하야 此를 下車하는 時에 勞働者의 行色이 有한 男子가 突出하야 短銃을 放하얏다 彈丸은 「오」 施政官의 胸部와 腹部를 中하야 卽死하얏다 其人은 卽時 走하고 「오」 施政官은 直倒하얏다 隨行한 人은 恐怖하야 所措를 不知하다가 後來하는 一臺의 自働車에 依하야 絶命한 「오」 施政官을 載하고 往하얏다 元來 負傷의 重大한 故로 「오」 施政官은 未久에 絶命하얏다 此 政府各新聞紙는 其暗殺에 對하야 如斯히 論하얏다 「聯合國과 資本階級의 黨派는 凶銃으로써 「오」를 殺하얏다 彼는 吾의 保民官과 如한 人으로 驚하얏다

台灣의 資本階級의 處分을 發表하야 資本階級은 被殺되얏다 吾人은 彼의 敵을 討하야 資本階級과 聯合國黨派를 皆殺하리라」 翌日에 佛國西大使館을 搜索하야 三四人의 佛人을 拘引하고 又 其外 々人도 拘引하얏다 資本階級은 露西亞人의 住宅에 搜索하야 恐怖時期가 到來하얏다 小露西亞는 猶太陸軍이 占領하고 故로 無秩序가 有하고 過激派는 施政官도 天下는 旣히 紛擾하게 되얏다 「페드구라드」 資本階級은 漸次 南露로 逃避하는 人口는 減하야 市街의 通行하는 人이 別無하얏다 大學敎授中에 三人은 外國으로 往코자 한 「에이」 博士는 過激派의 政府를 代가 紛擾한 故로 學問도 研究할 念이 無하다 云하는 人이 有하다

文藝

金剛行 (三)

下 樂

朝輝빗나는데

일은식 (早鳥)모양으로 서벽부터 나려나 떠돌고 부스럭 거리고 船客들의 떠들석 소리에 나 단잠을 뛰어고 毛布를 두른채 甲板上에 니러나 冷氣가 徹骨이라 久坐키 難하야 나 벌덕 니러 上衣를 着하고 數分間 니기어 運動을 맛치 後 汪洋한 海波를 無聊히 바라보다가 偶然히 西天을 바라보니 銀白色 波狀形의 雲間으로 漸々希微하여가는 曉月은 隱々하게 빗나도다 다시 眼을 東으로 轉하니 멀니々 바다 (水國)저건너 便에셔 무엇인지 무엇인지 무엇인지 키다란 것이 가만히 움즉이는 것 갓다 조금 잇다가 무엇이 큰 힘이 시 빠른 간 것이 나는 한편 것이다 一行中에 한 사람이 「오 바다에 海가 븕근키 이나다」 큰 함 두번째 나즁에 무슨 몸시 애니며 이고 이뇌 님의 萬像이 뿌ㅡ그 悲壯한 決心이나 한듯이 쓰다나 드듸어 ㅡ오ㅡ모오넘을 보드기지 안을수가 업섯다 아직 조용한 朝旭은 바다 들은 여러 秀麗한 群山衆峯을 고로々 빗치는데 모든 것을 背景으로 먼 섬들 차저가는 외로운 海鷗는 마리ㅡ 또 碧玉 갓치 서로 떠려진 靑年은 기여올나 갓다 바우위로

九龍淵

溫井里 金剛旅館에서

一九二一、七、二三

온井里를 向하야 오다가 金剛山의 入口에 드 니러 九龍淵 나무 記錄도 적지안은 一行中에 金剛山을 처음 보는 「奇絶壯絶」 하다 한 번본이 「君은 만이 가보앗는 것 갓다」 나도 말이 되지 못하고 금강山의 外部는 엇던가 하니 歸錄하는 것은 温井里를 向하야 오다가 文에 不過할 것이다 結局 無味하고 也 其及也 記錄을 하기 精力이 엇어 일거니와 모든 것을 모다 그러케 記錄하려 할 때는 말할 수 업는 것도 안다 나는 금강山 初入부터 놀나운 天下의 絶景이라 爲하야 奇絶壯絶한 景을 보고 이 적것을 보고 쑥스럽고 九龍淵까지 가는 길에 무슨 讚歎을 하며 바라보니 깃버하엿다 그러나 九龍淵에 연하야 演치안키로 그것도 잘 보고 갈 수 업섯다 참으로 놀라와셔 나도 안을수가 업다 天下의 絶景이다 九龍淵가는 沿路에도 連珠, 飛鳳瀑과 隱仙臺、玉流洞 들너 잇는 群山衆岳과 奇怪石의 許多한 名狀할 수 업는 絶景이 잇스나 다 九龍淵의 壯觀에는 觀止 혼손을 들 수박이 업다 測量한 바 高가 一百五十尺이라 한다 的確한 高度는 알 수 업스나 二百五十尺이라 한다 彌勒峰의 鬼々한 峯下에셔 飛流直下한 銀柱ㅡ 壯觀이다 山容은 浪花에 싸히어 보이지 안는 白中에 떠러지는 瀑포는 비로 기도하는 如함 우르 소리에 뵈는 것 가운대 巖石上에 橫臥하엿셧 나는 황홀하엿다 나는 天地를 잇고 나는 少焉에 뭇엇가라 岩石上에 어느 가 바람에 헌ㅡ 하고 그 밋흘 바라보니 「오이고 九龍淵의 急流에 싸여 물이 나려가보니 瀑布의 나려셔 기어 올나갈 때

世界奇聞

十萬圓의 女王

英國의 女王이라고 別名을 持한 一千萬長者의 夫人인 「로ㅡ셀」이라 六月十八日夜에 夫人은 巴里一流되는 料亭 「푸레가ㅡ란」에서 遊興하얏다가 極히 豪奢한 裝飾을 하얏스나 其中에 最貴한 首飾은 眞珠 二個의 價格이 百六十萬圓이오 次에 倫敦博物館에서 讓受한 時代 三百年의 大眞珠를 有한 其他 裝飾하는 것이 全部 合計가 三百萬圓이나 되고 尙히 其女子는 自己의 年齡의 半도 못되는 二十四歲의 美男子를 夫로 하야 當年 三人이 有하야 同居할 時는 恰々히 母子와 如한 觀이 有하더라

新家庭

創刊號 出來

뜻잇는者여 읽으라 보라!!

重要目次
家庭創刊에 對하야 …… 主幹
祝辭
家庭三大要素 …… 金弼秀
家庭보다 家庭으로 …… 盧子泳
文化生活의 意義 …… 申東起
十九世紀의 大社會學家의 女子觀 …… 李大偉
理想的家庭을 實現하라면 …… 趙淑卿
家庭에 對한 管見 …… 張道源
新人의 理想 …… 辛泰嶽
新家庭에 對하야 …… 金昶濟
祝新家庭(詩) …… 崔相鉉
園怨(小說) …… 羅蕙錫

京城黃金町二丁目二 新家庭社
一冊定價三十錢 (郵稅貳錢)

梅毒消滅球

本房梅毒消滅球는 特히 原料를 中國에서 輸入하야 製造한 故로 何如한 梅毒이던지 特別한 效能이 有한 바 六〇六號로도 全治키 不能한 梅毒이라도 梅毒消滅球를 服用하시면 一週日內로 得効하실 뿐 外라 永久 祛根하야 更히 不再發이오니 速々 注文服用하시압

定價 一箱三圓 二箱四圓四十錢

淋疾特効藥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諸般淋疾에 는 淋疾特效藥이 第一

定價 一週日分一圓五十錢 二週日分二圓八十錢 三週日分四圓

京城仁寺洞一〇一番地
製劑本舖 再生堂藥房
振替京城四七五八番

輸入 及 開城特産 具備

本店이 菜種 販賣業에 從事한지 多年에 信位와 聲價를 博하야 完備하온 中 特히 良種을 多數 準備하옵고 一層 廉價로 多少를 不拘하고 隨求酬應하겟사오니 倍前 下命하시옵 特히 白菜訓練院特等白菜 大一斗十圓 中等同 九圓 下等同 八圓 同小等同 六斗七圓 開城特産白菜種 大一斗 發芽特好 裏葉種 多品

京城府鐘路四丁目九九番地
梨南商店 主 韓鎭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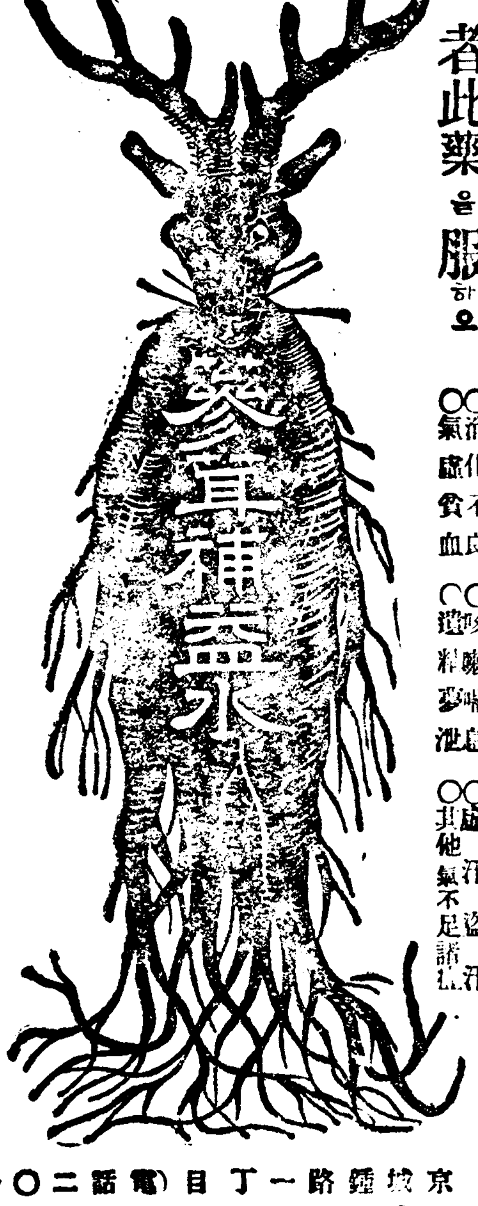
布屬廣告

日進月步하는 現世時運을 隨하야 吾人이 一日이라도 不可缺할 三大要素의 一이되는 衣服도 漸次 向上의 運에 達한 지라 本店에셔 多年 斯業에 從事하고 研究하온 結果 流行에 適合하고 堅實하야 經濟될 衣次 用綢緞布木을 無漏完備하옵고 大々的 廉價로 酬應하옵는 中 特히 布等屬을 一層 精選提供하오니 四海僉位난 倍前愛顧하심을 伏望하나이다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番地
綢緞布木都散賣商
聚盛泰
主任 黃相翼
電話 一七九二
振替京城三八六二番

地方에는 引換代金酬應

삼용보익수



春困을 難堪하는 者 此藥을 服하오

○病後虛弱 ○飲食不振 ○消化不良 ○氣虛貧血
○腎虛腰痛 ○咳嗽喘息 ○遺精夢泄
○下焦虛冷 ○手足厥汗 ○虛汗盜汗 ○其他氣不足諸症

一個月分 四圓
二個月分 七圓五十錢
三個月分 拾壹圓
郵料每月分 七拾錢

此藥을 引換郵便으로 注文하시라 면 郵料七拾錢을 先送하시오 不然이면 酬應치 아니함

京城鐘路一丁目 (電話二〇一一)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洋靴專門商

京城南大門通一丁目二七番地
光美洋靴店
主 李泰世 金泓濂

信行商會

金 銀

代金引換 地方

金銀細工製造物品
新式各種婦人 各種婦人帶 各種皿
男婦各人 各種指環 各種佩物
女人 各種時計 飾物
其他 各種記念品 各種指環

京城南大門通二丁目一五〇番地
電話一八三二番 振替京城六八〇

命의生의 本商會은 應酬迅速 精選品物

금과 은을 사랴면 여보시오 본 상회에서 사시오
물건이 조흐며 상품과 가격은 지극히 렴가 가의지

於蘇島東蘇島里 京城楊平間 機械船開通

幣店에셔 京城楊平間 一般乘客의 便利를 圖키 爲하와 機械船을 使用하야 極速力으로 不拘하옵고 隔日出發하오니 四海僉位는 愛護하심을 伏望

發船場所 蘇島東蘇島里
船表發賣所 京城鍾路通四丁目三一
崔錫宇
電話 一四一番
本部 楊平郡萬山面楊根里 濱陽運送店

京城解麻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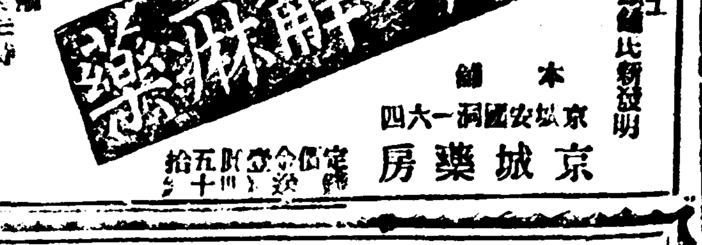
好評嘖々 優秀卓越 最高級劑

男女勿論何病 服用하는 次々 見效하야 一週日內로 根治되는 科學的 神藥이올시다

本舖 京城安國洞一六四
京城藥房
定價 金壹圓五十錢

仁川驛前
堀商會 鹽業都賣張所
原鹽米穀貿易 鐵道運送
主 鄭仁秀
電話 二五三番
振替京城六五四十番

獨特保險證進呈



◎五倍力 ◎ 純고무靴

總고무靴直輸入販賣商
仁川龍里一八三
安鍾弼

○定價表進呈 ○注文一割引

歐米情報

華府會議十月說

英國植民地首相 휴스氏는 記者에게 日하야 米國大統領하되오ㄴ氏는 會議를 十月에 開催하기로 한다더라 (倫敦電)

海底線과米國務卿

米國々務卿 휴스氏는 고압。얍프島의 海底電線은 米國에 附與됨이 可하다고 大統領에게 書面을 送致하얏더라 (紐育電)

英植民地防禦策

帝國會議는 昨日 終了되얏는데 自治植民地는 各自의 根據地를 防護하기 爲하야 自己의 海軍을 置함이 可하다는 千九百十七年의 旣定方針을 다시 肯定하얏고 而且 帝國은 今後 石油 貯油 設備를 爲하야 目下 考慮中이오 又 將來 商戰이 非常히 熾盛할 거시리라는 豫想으로 自治植民地는 各其 自家의 航運을 援護하야 可及的 輕巡洋艦、潛水艇으로 沿岸貿易을 保護함이 必要하다 하야 植民地는 各其 此種의 乘組員을 訓練할 事를 議決하얏다더라 (倫敦電)

米國務卿新提議
太平洋海底線敷設에關하야

華盛頓의 報道를 據한즉 米國々務卿 휴스氏는 若民間企業家가 太平洋橫斷海底電線敷設事業에 着手할 意向이 無하면 政府가 스사로 此를 遂行할 案을 承認할 事를 大統領에게 提議하얏다더라 (倫敦電)

個別的協議는不許
米政府對太平洋會議의意向

華盛頓의 報道를 據한즉 米國々務府는 華盛頓會議에 招請된 諸國의 何國됨을 不問하고 此와 單獨商議를 行함과 如한 提案에는 同意할 수 업다고 聲明하얏는데 此는 少하야도 엇던 一國이 此種의 單獨協議를 希望하는 事를 提唱한 者가 有한 證據로 釋하더라 (倫敦電)

新任駐中公使演說
軍備會議와東洋諸國民이여

新任駐中米國公使 크프、슈울만 博士는 커넬 俱樂部에서 演說하기를 「東洋의 諸問題가 今日世界平和에 對한 一種의 威脅이 되는 事는 人々의 熟悉하는 바인 故로 東洋諸國民은 아모조록 今回軍備縮少會議에 參加하여야 되겟고 米國은 中華民國의 領土保全及門戶開放을 擁護함과 同時에 中國自身도 其領土를 保有統御하야 他人의 容喙를 許치 아니할 事를 切望하노라」고 云하얏더라 (桑港電)

米船舶局對英抗議
米艦의不法待遇에關하야

米國船舶局은 外國諸港에 通商上特權授與의 際에 米國船舶의 公正한 待遇를 確保하기 爲하야 積極的의 手段을 取하기로 하얏는데 若米國人이 妥當한 待遇를 受치 못하면 船舶局의 報復手段을 取할 줄로 解釋되며 船舶局의 所信을 據한즉 英國이 棉花貿易에 從事하는 米國船舶에 對하야 不當한 態度를 取함으로 船舶局은 英國에 對하야 強硬한 抗議를 提出하얏다더라 (華盛頓電)

紐育市暑氣太甚

紐育市는 暑氣가 甚酷한 所致로 死者가 續出中이라더라 (紐育電)

英高等法院新判決例
愛蘭人에게死刑을宣告한軍事裁判의不法을指摘함

愛蘭에 잇는 英國軍隊의 權限問題에 關하야 「더부린」高等法院은 軍隊의 職權濫用은 不法行爲가 될 뿐 아니라 何等의 法的根據도 無한 것이라는 判決을 下하얏는데 此는 法律解釋上 極히 重要한 判決例이라 此判決을 下한 原因은 彈藥을 所有한 嫌疑로 一人의 男子가 軍法會議에 引致되야 死刑의 宣告를 受함에 對하야 該被告가 그것은 不法이라고 控訴함에 由함이니 「더부린」高等法院은 如此한 軍事裁判은 陸軍士官의 手에 依하야 法律上 賦與되지 아니한 權限을 任意로 假造한 것이라 고 判決한 것이라 由來로 此軍事裁判所는 審判權限만 有한 軍事法廷에 不過함으로 死刑의 宣告를 下할 權限은 國法上 賦與되지 못한 것인즉 軍事當局者도 國家의 諸官吏와 同樣으로 高等法院의 判決에는 服從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是以로 一般法理는 「非常時에 際하야는 軍隊의 特別權限을 認하고 政府의 權限 밧게 與치 못함이라」 一致한 所以라 大法官記錄官吏는 高等法院으로써 便宜를 取하고 「平和樹立을 爲하야 活動하라는 英國軍隊의 努力을 非常한 支障을 致하겟지만은 文明社會의 眞個의 利益과 福祉를 損치 아니하는 絶對不可侵의 正義에 對한 永遠한 原則을 確立하는 便이 得이라」고 云하더라 此「더부린」高等法院의 判決은 從來軍事裁判所의 命令에 依하야 多數한 愛蘭人이 射殺又는 絞殺된 事에 對하야 「此는 英國憲法에 照하야 不法行爲라」고 宣言하고 假令英愛兩民族이 戰爭狀態에 잇다 하더라도 그것은 軍事法廷을 設치 못할지니 此에 依하야 從來의 判決例를 無效라 할 것이라 하니 判決에 依하야 ... 上에 重大한 影響을 及할 것이 업다는 事實上 此判決은 從來의 法을 解釋하야 ... 合法의 範圍 ... 上에 重大한 ... 이더라 (倫敦電)

中國政局

張氏新募兵三百

張作霖氏는 直隸省에서 三百名의 新兵을 募集하얏다더라 (北京電)

極東關係

浦塩罷業團赤化

去二十八日부터 鐵道從業員의 大部分이 總同盟罷業에 參加한 所致로 不得已 列車의 運轉을 休止함에 至하야 浦鹽政府는 「갑폐리」軍으로 鐵道隊를 組織하야 從事케 한 結果 勞働者의 感情은 益々 險惡하게 되야 罷業의 解決을 延引케 하야 赤色勞働者로 하야금 「반動」의 行動에 出케 하게 되엿고 罷業의 原因은 賃金의 支拂要求에 在한데 浦鹽政府는 抑壓的 態度를 取하야 多數勞働者가 捕縛된 等事가 共產黨의 煽動者에게 可乘의 機會를 與함으로 一層 더 罷業에 參加함으로 電氣、造船의 各職工으로 郵便、印刷職工의 一部는 旣히 復業하얏고 社會革命黨은 勞働者에게 同情하야 議會에서 政府攻擊에 準備中이라더라 (浦鹽電)

北樺太對日提供說

極東共和國政府는 日露通商開始의 條件으로 露領北樺太全部의 租借權을 日本에 提供하리라더라 (浦鹽電)

井上博士取調

歐米旅行中召喚된 滿鐵撫順炭鑛長工學博士井上匡四郎氏는 一日 橫濱에 入港한 汽船으로 到着하야 東京地方裁判所檢事局으로부터 東京檢事가 出張하야 船室에서 取調를 行하고 其擧 裁判所로 同行하얏더라 (東京電)

朱特使着東京

北京政府의 特使 朱啓鈐氏는 一日 入京하야 東京驛호테르에 滯在하는데 留學生은 極其 歡迎하더라 (東京電)

外國郵便値上案
樞府委員에서否決

樞密院의 審査委員은 郵便料金增加의 件에 附議하얏는데 去月二十五日 委員에서는 終乃 否決되얏는바 政府에서는 最近更히 樞府에 御諮詢의 源에 至한 同條約은 勿論이오 日本國全權委員의 調印을 了하얏슴으로 外國郵便條約을 上奏하야 成立된 新郵便條約은 昨秋 馬德里의 萬國郵便會議에서 調印된 것인데 大正十一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야 確定된 바 旣히 今春以來 料金增加를 實行하야 오는 國은 英、佛、獨、伊 등 十餘箇國에 及하얏는 바 就中 新條約實施以前에 各國이 便宜로 增價를 實行한다는 事는 條約으로 結定한 바 아니오 又 議事錄에도 記載치 아니한 事로 但히 馬德里會議에 簡單한 口約에 不過한 事로 思할 뿐이니 오직 日本과 加한 法制上 郵便法의 改正은 條約으로 又는 法律로 行치 아니치 못할 事임으로 日本全權委員이 如斯한 口約에 加한다 하면 甚한 越權의 濫行이라 하겟고 全權委員의 責任問題도 一特別問題를 惹起하고 政府도 議會中에 何等 郵便法의 改正案을 提出치 안코 今에 倂히 遞信大臣의 命令으로써 便宜料金을 增加함을 立案하야 樞府에 臨하얏스나 郵便料의 變更은 法律又는 條約으로써 行치 아니하면 不可할 바임으로 樞府委員會는 此를 除斥한 貌樣이라더라 (東京電)

陸軍將校異動

鮮銀株主總會

朝鮮銀行에서는 來廿二日 總會를 開하고 本年上半期營業報告를 할 터이라더라

免本職補海軍將官會議員
海軍少將 吉田清風
補馬公要港部司令官
馬公要港部司令官中將 谷口尙眞

八月一日附로 左와 如히 辭令이 發表되얏더라 (東京電)

遠距離飛行

海外遠距離飛行은 來十一月十日부터 二十日々지 大連、柳樹屯經由 京城大邱를 經하야 福岡에 飛行하기로 決하얏다더라 (東京)

日本帝 飛行協會의 準備에 依하야

各國國富와軍備
日本政府調査

華府會議에서 軍備制限問題의 準備로 如何한 것이냐 하는 日本國防上에 一大影響을 及할 것이라 하야 日本政府는 極力으로 諸般의 硏究準備를 行하는데 就中 本表는 其重要한 一調査이더라 (東京電)

國別	國富概算	國費總額
日	五九〇(億圓)	一、五六二(百萬圓)
英	一四〇(億磅)	一、一八八磅
米	三、二五四(億弗)	三、九五三弗
佛	二、四〇二(億法)	五、八五二法
伊	九二二(億利)	六、二五一利

以上 各國一箇年의 國費總額中에는 大體次의 陸軍及海軍費를 含함(單位百萬)

	陸軍費	海軍費
日	二六三圓	四九八圓
英	一四六磅	八四磅
米	九二九弗	五七五弗
佛	四二〇七法	八五〇法
伊	四一八利	二三六利

故로 陸海軍費의 國富에 對한 百分比率은

	對國費率	對國富率
日	八、六	〇、〇一四九
英	一九、四	〇、〇一六三
米	三七、八	〇、〇〇四八
佛	一九、七	〇、〇二三八
伊	一〇、四	〇、〇〇七〇

國民一人當國富分擔額과陸海軍費는 左와 如함(單位 円)

	國民一人當軍費	國民一人當分擔額
日	一三·五	八四·四
英	三六·七	三七七·一
米	二八·四	一、一七八·八
佛	一九·三	三九二·四
伊	四·三	一一三·六

而最後에 各國及植民地土人을除한總人口及陸軍兵力은如左(單位千人)

	總人口	陸軍兵力
日	五七、〇〇〇	二五〇
英	四七、〇〇〇	三〇〇
米	一五〇、〇〇九	四〇〇
佛	三六、七〇〇	八〇〇
伊	三六、七〇〇	二五〇

警部補一行通過

警官講習所長 松井茂氏는 警部補 二十名을 率하고 二日朝 入港하야 直히 特急列車로 京城에 向하얏더라 (釜山電)

官廳所管不動產登記囑託件

官廳所管에 係한 不動產登記의 囑託에 關한 左記件은 今三日附總督府令으로써 官報에 發布하야 卽日부터 施行한다더라

第一條 總督府所管에 係한 不動產의 登記는 左의 官吏로 하여금 此를 囑託케 홈 (以下略)

痲浦住民의電車區域撤廢運動

京城電氣會社가 其營業區域되는 京城、龍山間의 電車賃金區間을 撤廢하고 兩方이 共通으로 하게 되엿스나 痲浦는 龍江面方面 住民은 此際에 一致한 步調를 取하야 京電當局에 交涉하야 義州通、痲浦間의 特殊區間制도 撤廢케 하고저 過日來로

旺盛한運動

을 開始하야 京電會社로 山內營業課長을 訪問하고 屢々陳情하야 오는 바 山內氏는 當然한 것이니 곳 實行하겟노라 한바 詳細한 事情에 잇서서는 不可能한 事情이 잇스니 오직 其營業狀態로 第一로 하고 可能하면 實施하기로 하는 바 京電會社는 期成會의 志를 計畫하기를 保證치 안코 更히 回答하얏스나 到底히 實行치 아니한다 하야 一般은 不平中이라 함으로 委員을 設하야 方今 運動中이라는데

監督官廳을

動케하야 巳月午前의 計畫을 達成하기로 金溶德、南氏와 孔德里 代表 久保田 六三郞 兩氏及阿峴里、桃花、麻浦 青年代表 金星植 氏는 當局者를 訪問하고 意見을 陳述하야 佐藤 內務部長은 好意로 聽하얏다더라 京電에 對하야는 請願後 退出하야 更히 期成會 有力者 數氏를 訪問하고 意見을 陳述하엿다더라

區間制撤廢

要望하는 理由는 左와 如하더라

一、麻浦住民은 二萬八千人에 達하고 比隣의 部落民을 加하면 八萬을 超過하는 中이오 住民의 多數는 龍山在住者인 故로 電車의 使用이 大半이오

二、加之에 龍山在住 官公吏와 鐵道關係者 等의 使用이 多한 것이오

三、麻浦는 古來로 漢江沿岸에 占居한 關係上 京城의 商業에 貢獻한 바 多한데 唯獨 龍山에 比較하야 遠隔한 故로 衰退하는 中이며

四、試컨대 京城의 中心을 鍾路로 하고 此로부터 各終點에 至하는 距離를 測定하면 龍山은 約四哩半이오 麻浦도 四哩半에

陽德郡廳移轉

平安南道陽德郡廳은 「陽德」面으로 移轉하기로 大正二年朝鮮總督府令第百十一號 中 「陽德」의 項을 「九龍面」으로 改正하는 件은 今三日附 府令으로써 發布하야 卽日부터 施行하기로 하엿다더라

(理由) 大正元年府令第四十四號 及同五年府令第三十八號 改正案은 主務課로부터 提出하야 中樞院 ...

(以下 人事 木浦府尹 以下 略)

某當局者談

麻浦住民의 區域撤廢運動에 對하야 某當局者는 談하되 麻浦의 經濟的으로 發達된 것이 市街地와 比較하면 實로 非常한 差가 잇스니 오直 此를 地方的으로 分하야 期待함이 可하다 하야

陳情委員은 盛히 麻浦의 經濟的으로 比較하야 人口와 戶數의 現狀과 京城電車의 收入이 比較한 結果 京城行電車에 至하야 路線을 延長하고 電車의 輛數를 增加하야 運轉하는 事는 不可하다 하면

第一의急務

로 麻浦線의 一車輛을 增設하고 複線設備를 要하고 運賃의 問題는 爾後에 研究할 바이라

滯阪中인比島獨立運動一行
米政府意向如何

七月二十九日 大阪交詢社에 出席하야 比島問題에 關하야 演說을 試한 同島上院議長 「마시에-」 케손氏、米本國駐在比島委員 「라발렌」氏와 同伴하야 同島獨立에 關하야 統領及 휴스 國務卿의 陳情하기 爲하야

渡米의途

에 在한 것인데 氏의 使命은 比島總督 「우드」將軍及 前比島總督 「해리슨」氏等의 比島에 對한 視察의 結果 米國政府가 如何한 態度를 取하나 하는 바 中에 比島에 對한 政策이 一變하야 獨立에 反對의 傾向이 顯著함에 至하얏슴으로 此에 對하야 努力하야 不利한 形勢를 挽回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獨立의 目的을 達하기 爲함이라 傳道되며 此는 此를 否認할 수 업스나 再昨年 華府에 至하야

獨立問題

等의 今回使命이 如此한 獨立問題에 在함을 不問하는 것은 自明의 理致이나 만일 獨立의 當然한 要求에 對하야 米國의 歷史的 地位로부터 推測할지라도 更히 新共和黨 政府에 對하야 다시 同一한 運動을 할 것은 明白한 바이라 「케손」氏는 比島問題는 米國의 自由獨立에 依하야 提唱된 것인데 最近 「오-」大統領及 一層 增加되는 傾向이 잇슴을 不拘하고 比島 獨立을 許하지 아니하는 것은 自由主義의 宣傳에 矛盾되는 것이라

產鐵總會와減資

朝鮮產業鐵道會社에서는 來十五日 東京 帝國商業銀行樓上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하고 左記 議事를 附議할 터이라는데 解散取消、重役改選及資本金一千萬圓을 五百萬圓에 減資 等이라더라

咸鏡線速成請願委員入京

咸鏡線速成請願委員 一行 四人은 一日 午後七時 南大門着列車로 入京

期米去益奔騰

期米는 八月一日 新甫以來로 漸騰하야 仁川期米는 또 다시 百五丁 暴騰하야 中限 二十八圓十錢이 되얏는데 이것은 日本 天災悲觀說이 主要材料가 된 것이라더라

陽德出張所移轉

平壤地方法院 陽德出張所는 今三日부터 平安南道 陽德郡 九龍面에 移轉하게 된 바 右件은 總督府 告示로써 本日附 官報에 發布하얏다더라

定例局部長會

昨二日 火曜 總督府 定例局部長會議는 當日午前十時부터 第一會議室에 開하고 總督、政務總監 以下 各部局長及 警察官 其他 民情事務에 關하야 ...

比島에滯在

중인 所報에 據하면 目下 比島에 滯在하는 「우드」將軍及 前總督은 不遠間 米國 大統領에 復命할 터이라 此間에 同島視察의 結果에 關한 報告를 提出할 터인데 一般으로는 比島의 將來及 「포올스」 前總督은 其內容을 米國의 支配下에 置함이 可하다고 報告할 줄로 認하얏스며 此報告는 最終報告의 基礎가 되야 自治를 許할 것인지는 今後의 決定에 屬한 바이라

比島政策

新使命은 同島의 基調를 成한 今回 共知된 바와 如히 同島의 獨立問題의 調査를 爲하야 派遣된 「우드」將軍은 大統領에게 米國의 政策을 報告하야 獨立 問題의 調査 結果를 成할 터이라

京取證據金增徵

京取에서는 株式 暴騰으로 因하야 短期取引 委託證據金을 五十圓으로 引上하야 二日 後場부터 實施한다더라

謹告

八月二日 發行 本紙 第二百四十九號는 當局의 忌諱에 觸한 바 되야 發賣頒布가 禁止되얏기로 此를 愛讀僉位에 謹告함

朝鮮日報社 告白

總督官邸午餐會

齋藤 總督은 昨二日 午後 零時半 東京 博士 佐分利一郞氏 等을 官邸로 招待하야 午餐을 開하얏는데 總督府로부터 各 局部長 代理가 列席하얏더라

兩局部長急東行

總督府 鐵道部長 弓削幸太郞 氏及 局長 西內山 三氏는 急히 東京에 出張하야 ...

同光會發會式準備

在京 同光會總文部에서는 發會式 準備를 協定하기 爲하야 支部 幹事長 李喜侃 氏는 二週間 豫定으로 東京 本部에 出張하얏더라

咸南惠山電氣許可

咸南 惠山里에 잇는 北野商會는 惠山에 電燈 供給의 目的으로 電氣事業을 出願 中이던바 昨二日 遞信局의 許可를 得하야 瓦斯力 二十五 키로 點火 計畫이라더라

大同小異

대저 同地方 住民이 ... (以下 判讀 困難)

防疫消毒講習

京城府에서는 來五日부터 九日々지 五日間 府廳 土木課에서 ... 防疫消毒에 關한 講習을 開催할 터인바 ...

三宣敎師의來鮮에就하야
松永外事課長談

...

鮮鐵下旬在貨

七月下旬末에 鮮鐵在貨는 十六萬七千二百七十噸 ... 前旬에 比하야 ... 四十四噸을 減少하얏스나 大體上 格別한 差異가 無하다 하며 其增減은 如左하더라 (△印은 減)

品名	噸數	前旬比較
大豆	六八	△一〇八
米	六七二	△一三〇
栗	二六	二六
麥	二四六	△二〇一
雜穀	二〇	一九
野菜	一九	...
木材	二〇	一八
薪炭	一一七	六九
石炭	七七	六五
鑛石	五四八	四
石材沙利	五二	△二一
鹽	...	△二〇四
鹽干魚	五五	四六
麥粉	...	△二〇九
砂糖	...	△二〇
綿織物	一	△一〇
세멘트	...	...
石炭	三四七	△一〇
金屬製品	...	△二〇三
繩叺筵	二六	△一六
生牛	一五	一五
石油	二六	二六
食料品	八	八
飲料品	五	三
綿絲	一	一
肥料	二	...
其他	一七	△九
社用品	一〇八六	△二五九
合計	六五七九	△一五〇八

商況

各地期米

仁川期米
八月一日後場 (暴騰)

昨日初後會는 朝鮮以上의 上付으로 活氣를 呈하야 ... 漸騰하야 中限 二十七圓 十八錢 ... 大阪 ...

▲第一節 當限은 二十五圓九十五錢 中限은 二十六圓二十錢 先限은 最初 二十七圓十錢이 公定이 되얏는데 ...

▲第二節 當限은 前節보다 十五錢高한 八十錢에 一口가 잇고 中限은 六圓十五錢으로 〇六錢 外지 잇고 先限은 七圓十錢에 ...

▲第三節 當限 不成에 大阪高騰을 報하니 人氣는 一變하야 十二錢으로부터 ...

▲第四節 當限 不成에 中限은 八十錢에 始하야 九十錢의 高價 ...

▲第五節 當限 不成 中限은 九十 ...

▲第六節 ...

八月一日 前場 (爆發又爆發)

本日 後場은 前場에 ... 大阪 ... 暴騰 ...

▲第一節 當限은 昨止보다 四十錢高한 二十六圓六十錢이 公定 ...

▲第五節 當限은 八十錢에 一口 ...

▲第六節 當限은 六十五錢에 ...

仁川 合仲買店
仁川府海岸町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一日後場 (電話)

初付	二十八圓二十錢
止價	二十八圓二十九錢
高價	二十八圓七十一錢
安價	二十八圓〇五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八圓二十錢
二節	二十八圓二十五錢
三節	二十八圓二十三錢
四節	二十八圓二十三錢
五節	二十八圓二十一錢
大節	二十八圓二十一錢

一日後場 (電話)

初付	二十八圓五錢
止價	二十七圓六十九錢
高價	二十八圓五錢
安價	二十七圓五十五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八圓五錢
二節	二十七圓八十六錢
三節	二十七圓八十三錢
四節	二十七圓六十九錢
五節	二十七圓六十七錢

取組高	
八月限	一萬七千七百石
九月限	二萬八千二百石
十月限	二十九萬二千九百石
賣買總石數	四十一萬二千二百石

仁川大豆
八月二日前場

昨日後場은 各地現物高로 因하야 當限 十五圓으로부터 四圓八十錢이 잇고 九十錢에 止하얏고 今 ... 各地不變이라 하야 別異動이 업시 立會하다

▲第一節 當限은 十四圓八十五錢에 始하야 八十錢에 止하고 中限은 ...

▲二節 當限은 八十八錢에 始하야 八十五錢에 止하고 中限은 十四圓四十錢에 一口 ...

期米

一日後場 (電話)

初付	十四圓
止價	十四圓
高價	十四圓
安價	十四圓

公定價格	
一節	十四圓
二節	十四圓

取組高	
八月限	五萬六千二百石
九月限	二千六百石
十月限	九百石
賣買總石數	七千三百石

◎群山電報

八月一日

止米	
八月中	二七、〇〇

延取引	
八月中	二七、二〇
八月末	二七、六〇
九月中	二八、三〇
九月末	二八、一五

小林藤右衛門

京城株式

今週前場 (外週中)

株名	前場	後場
京取引	二二二	二七〇
京取引	二五〇	二六〇
仁取引	一五〇	
鮮銀引	二六〇	
同新引	二四〇	
鮮銀引	五六	
同新引		
殖銀引		
商銀引	二七〇	
同新引	二五〇	

本日時勢는 右와 如함

株名	前場	後場
京銀引	三六〇	
新引	三七〇	
二引	二七〇	
拓殖引	二七〇	
同引	一六八	
土引	二三〇	
同新引	二三〇	
毛引	一六八	
東電引	二七〇	
同新引	三三〇	

株名	前場	後場
朝興	二六〇	
紡紙	一九〇	
鐵	二三〇	
證業	一九〇	
朝鐵	二七〇	
運	二九〇	
朝鐵	二五〇	
東亞	二〇〇	
新	三八〇	
北鮮	二〇〇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話三四五五番 有價證券 現物問屋 永金永商會

大正九年中에 交通機關의被害數
총계숨빅칠십오인중에 경긔도가일빅이십이인

긔차(汽車)자동차(自働車) 자뎐차(自轉車)와갓흔륙디교통긔관(陸地交通機關)이발뎐되는 동시에인류의 편리와 힝복이 늘도더흐야 가지만은 문명의 그릇이라흐는 것은다디한리익이잇는동시에사쇼한폐히도 업지못흔것이니 경셩갓흔디로 회디에셔요사이큰길에나셔々 보면 경관들이 길가온디 에늘어셔々 외인편으로 가게호롤파바른편으로 가겨호사람가다 장애되는 호들차동을청리흐는것은 다름이안이라 즉텬긔와갓흔문명의그릇을 각즉의폐회가업시 유리흐게 사용코자흐는목뎍이다 그쳔진은각종바법에셔 의지흐야 쥬의를게 흐지만은엇지흐수업시 그문명 의그릇으로인흐야 귀즁한싱명을버리게 되는자가 젹지안토다 이런페히가 갈사록 증가흐야 가는모양이니춤으로 애석흐기 모 흐고인뎐으로 각々스사로 주의치안이흐며, 안이될것이다 뒤졍칠년이후로뒤졍구년까지만삼기년근에 교통긔관으로 인흐야사상자롤들어보건뒤륙빅팔십삼인인뒤 미년이빅이십팔인가량이나되고 이것을다시

년도별 루붙디 경이면뒤졍칠년에 일빅팔십인 뒤졍팔년에일빅이십팔인 뒤졍구년에는삼빅칠십오인인뒤 그즁에시분지구분은 조선인이오그피히자를 도별(道別)르붙디경이면 디졍구년중에 경긔도에일빅이십이인 경상남도에 칠십오인 경상북도에 삼십이인 젼라남도이십오인 젼라북도이십이인 황히도에십팔인 평안북도에십삼인 함경남도구인 평안남도팔인 츙쳥북도십인 강원도오인 츙쳥남도와함경북도에각삼인식인디 이것으로 볼지경이면 교통긔관의발달이 완비치 못흔디방에는그 피히자수가 젹々젹은모양이오 그피히자의뒤부분으로 말흐면 모도다자긔의 부쥬의로인흐야 가셕흔싱명에 그와갓흔 불상사가 싱기는모양인즉 일반은 쥬의치오니치못할일이더라

中國人三名 新義州署에逮捕
죠션독립단을위흐야 무긔를밀슈입흐다가

지나간칠월이십팔일에 압록강늘건느고자흐는 세사름의 즁국인은 남안경찰관(南岸警察官)의눈에 띄우힌동이수상흐게 보이여 즉시취조흐야본즉 세사름이 모다 큰혈포흔기식품에 품고잇는것을발각흐고 경찰셔로인치흐야 취조즁인뒤 오마죠션독립단파 긔믹을통흐야 무긔를밀수흐던듯흐다더라

投錨中의 佛國軍艦

본월십일ᄭ지데지임 지흔바와갓치 원산항에 뎡박즁인 불국순양함「몬카ー무호」는 칠월이십구일 동항참모(參謀)가상륙흐야 원산부청 헌병뒤、경찰서등을력방흐고이사를흐얏는뒤 동삼십일、삼십일々의량일은 시민일반의관람에공흐얏고 승조원은삼십일부터 뎐부상륙흐야약십일간은원산항에셔 체쉬할터인뒤 동사령관쇼장「도미무메ー」씨의말흔바에의지흐면 동국군함이이번에 원산항에드러온것은 별노다른 뜨슨업고 다만 일반과 밋즁국의연안을관광흐기위흠이라흐며 그럼으로 먼져장긔에입항흐얏다가 뒤빈신호、무한등을경유흐야 한관에도착흐얏다가 이십사일한관에셔발묘(拔錨)흐야 그곳으로부터 바로 원산에입항흐얏는뒤 원산항에셔발묘흔뒤에는부산항에도착흐야 슈일간체지후 지부(芝罘)항으로회항홀예뎡인니 승조원은 사관이삼구명、준사관륙십명、하사々빅구십명이라 더라

東署에檢擧된 軍資募集員

젼라북도 졍읍군산외면상두리(全羅北道井邑郡山外面象頭里) 오학근(吳學根)(五六)은 독립단에츄가흐야 군자금을모집흐던중동뒤문경찰셔원의탐지한바되야즉시검거되얏는뒤 오학근은 가왕시니항즘쳥읍쳥목김모의집에셔 유싱(儒生)리틱훈(李泰勳)의권고에의지흐야 죠선독립의목뎍으로죠직된 유싱단(儒生團)에가입흐고 기후젼라북도각군의유싱들을규합흐야 쟈긔가스사로단장이되고 디졍구년님월 리래흡、리완식(李完植) 김진억(金鎭億)등과흠씌 젼긔졍읍쳥목김의집에회합흐야젼라북도부안군(扶安郡)지산가리명호(李秉鎬)를 경성으로붙너올녀군자금의제공을강권흐자고 협의한후 오학근은스사로 샹경흐야청부원파갓치々미고 오직리병호를붙너올녀 다익의금젼을엇고져흐다가 검거됨이라더라

朝鮮女子教育會 女子講演團

됴선녀자교육회강연단일힝여섯사름은 단장김밀리사(金美理士)녀사의인솔노우리에 희쥬로부터 긔션을탑승흐고지난삼십일일하오다섯시에 당디에도착흐엿는뒤 츅항부두에는동일황졍뎐졀흐고지 당디녀자에비원쳥년회원파 및기타유디와조선일보지국 동이 츌영흐엿셧나 일힝여섯 분은쳐ー평안남북도와황히도를 둘흐야이십사긔쇼를 것쳐셔오는바이나원긔가미우왕셩흐며김미리사녀사는 말흐되 적으나마우리들의강연파자미롭게여인다고 운々흐더라 그리흐야익일은오여덜시반부터 츅현쇼회교강당에셔 강연을흥게 되엿는데 별안간청오부터 비가옴으로관계자일동은 미우걱졍흐엿셧다 그러나 일쳥은꼭치기가어려움오로 일반경언을맛치ㅣ비가죠흔국곳지기쁠고뒤흐엿셧스나 비오는것은 그뒤반찬가지이엿다 **동일힝의** 뒤강흔후흐고 뒤흐든여러사물들은 일긔의부죡흠으로 불구흐고 시군젼부터 바쳥흐려오는자가 다수흐야 긔회흐기편에무려쳔여명의 청중으로 만원을일우엇나 이에당디 **한용쳥년회** 장박쳥흔(朴漢)씨의사회로 긔밀ᄂ사녀사는 가뎡은인싱의락원(家庭은人生의樂園)이라는문뎨로 상시간에렵변ᄒ토ᄒ야 남녀쳥여명으로흐여금 다뒤한유익흠을주고 독창파합창이잇셧다사 그리흐고 **리은슈양녀자의** 내자교육회쥬지에소기를맛친후 약오부근의훈식이잇셧난뒤 그이에당발티쳥한 유지로보터약간의긔부가잇셧고 계속흐야진는수양는 시군은싱명(時間은生命)이라는문뎨로강연흐야는바에게들난후 이부합창으로써폐회흐니 셔노발열힌시를시나엿더라 그런ᄂ **동일힝여** 셔병은인천셔강연을맛치고이일오전구시추ᄀ현역발뎐지도청쥬ᄃ향ᄒ야원긔왕쳥흐게흠발흐얏다더라(인쳔)

閔元植殺害犯人 梁槿煥은無期懲役
작이일동경디방지판쇼에서무긔징역으로판결

본년 이월이십륙일졍 동경호테르 뎨십사호실에셔 민원식(閔元植)을 살해훈 량근환(梁槿煥)은 동경디방지판소에셔 심리즁이더니 공판의결파 작이일오졍에 동지판소에셔 무긔즁역의션고를밧앗다더라

現物市場朝鮮人 仲賣店搜索
장부、뎐표기타다수 증거물품을압슈흐얏나

션월하쇼이락 본뎡경찰셔사법형사이명은 명치졍에잇는 현물취인시장(現物取引市場)을츄심으로흐고 현물증미뎜에뒤흐야 무신흔인지비밀흔속에셔취조를계속흐야오던바 칠월이십구일저녁에 돌연히며치경엇던죠선인증미뎜에드러가 엄즁히취조흔결파 장부、젼표(帳簿傳票) 기타다슈흔증거물품을압슈흐야오고 다시면밀히취조흔결과우연이 무신사건이발싱홈파갓흔디 봉형사는 우연이 디활동을기시흐야 지나간삼십일은 츅제일임을 불구흐고 각방면으로향흐야 수사를힝흐고 본월일々은 이른오브터 형사이명이 그사건에응원흐야 츙미뎜에츌입흐는사름에되흐야 면밀흔취체를힝흐얏는뒤 봉형사는 시장사무쇼에드러가셔 다른형사의명파 장시근을계속흐야 현물시장의샹황을자세히듯고 오후일시가지난후에다시본거로도라와셔 사법슈임파련흐고 무신원인지 보고를맛치인후다시 삼명의형사가 여러쳥방면으로향흐야활동을기시흐얏는디 사건의니용에디흐야는 절디로비밀、붓치여 오죽자세히보도키어려우나 송률에긔흔사람이잇슴으로그사건에디흐야 본졍경찰셔는 취조에착수흐던바 우연히쳔긔와갓흔 무신사건이발싱흐얏니 동경찰셔에셔는 이사건이지경계에밋친흔영향이 적지안이흠으로써 상당히신즁흔도로 검거에착수할터인바 수논증에는오연히적극더의활동을긔시흠에이르ᄂ다더라

每日電車收入 三百圓減少
여름은의례히 감소될뗘라고

팔월일々부터경성동산사이에뎐챠관통(電車貫通)로인흐야 회사측은얼마나 감쇼되얏는지 들어본즉 평쇼에는하로동안에 비천칠팔빅원의 수입이잇더니 동일흔이후에는 적어도일々 삼빅원가량은감소될모양인디더 이감흔는터이고 학싱들도미구귀휴가를 리용흐야 팔월이후에는더구나일층감쇼될터이라흐며 쏘요사이뎐차운뎐이적은것은 목하긔계에고장이싱기여 오지륙십오디는 운연흠이나 일반승직되면외롤도々 쥬야로수리에착수흐다더라

社會의害毒인早婚 父의罪?女의罪?(六)
양순이는순경을빗쳑하고 비봉셕에게마암이쏘근넛다

양순ᄂ가이와갓치 몹질으려단념여마다 그압사랑을흐십히치여다볼만안이라 상옷々々 옷ᄂ얼골도 누구인지 청신업시치여다보고는 으득허니 셔々잇는데도 죵々잇스니그사람은누가잇셔々그러케 치여다보며심々々々ᄂ지 양쇼는외에는 이모도온사람이 안스니 양쇼이가 누구인지자긔맘ᄂ로사랑흐며흠모흐는 사물이 그사람이 잇슴은 양쇼의휭동으로써가히추측흐야 알바이다 편ᄂ밀ᄂ비와갓치 ᄋ사랑에와셔노는사물가온ᄂ에 이사사오세되ᄂ 건장흔 남자가잇ᄂ흔은오히려 독자의 신경에셔떠나지 안이흐얏스려니와 그남자인비봉셕이ᄂ 양슌이는 파마음에 이세상 에셔는 듯고되지 안이ᄂ는 미남자 이며 쏘흔자긔의 마음을 엇케코쳐흐야도자넘히여케키어려운 쏘거운 사랑의쇠리가 비봉셕의게로만향흐야가셔 엇지흐면 져와갓흔남자와 원평심흘 영원히힝복잇게 사랑이가득흔 락원에셔질겁게 우숨으로써 지닉여볼가흐는싱각뿐이엿다 그리흐다가 자긔부모가 결뎡흔혼인을엇더흔방법으로든지 거절흐야버리고 녀가ᄂ마음에맛는 남자와 자유결혼을 힝흐리라고결심을배에 양쇼ᄂ신경에 환영(幻影)되는바이잇셧스니곳비봉셕이가 어셔상에셔가장 지그에게 덕당흔 남편이되겟다흐고비봉셕의게ᄀ쏘스옴알게흐고자흐잇스나사람의눈이면잡흠으로 몃번이나조흔긔회를엇고자흐갓스되종시엇지못흐다가지나간 **륙월십이일경에** 양순의셩뎡에디흔 힘복이라흠는지불힝이라흠는지 또는장릭에엇더한 일이발싱흐야 엇더흔방면ᄭ지 발뎐이될는지 양쇼의신이 결뎡코바쇼위자유결혼이라는것이 양쇼의마음파갓치난흐게될는지 오직은의문되는바이나 엇더흔지양순이는 조근마음속에 집고굿게미친말을 **동정을구** 흐리라흐다가 ᄂ날을당흐야는 우연히됨인지 헤힘복이 오라홈인지 쏘는 불이 침노흐라홈인지 양순의압흡으로엇더흔게 회홈는지이것이 쇼이는 그결심을바를엇더한방 희를엇게되앗스니 **어린ᄋ희와자** 그부모가 약혼흔일이며 이혼인에디흐야 자긔는졀디로거졀흐겟다는 말로부터비봉셕의게로 향흐는마음이잠시라도잇치지안이흐야 쇼의말도못흐고무ᄀ々히셔셔잇아 쇼흘는지미々흐야 양쇼이는미우겁하듯이 여셔디답솜으시오 누가보기흐며 지축흠흐얏스되 비봉셕이는무슨싱각을흐는지 쏘흔모디답이업슴이 양순이는민망흐야못견디는도 모ᄂ으로그러며엇더케흐다는 디답이잇셔야지오 왜그러케 쟈든지못흐겟든지 디답이업셔오 여보남자쇼 그것지발좀오를못혼단말그케야근신히나오는떨니는말로 **나난그러** 케못흐겟는걸 양쇼의게는 청신이옥흔고로잠쇼 업셔셔 쳥신이온독흔고로잠시는두사람의 남녀가모나아모말업시 그러면엇지흐면죠흔가 물을뿐 양순이는 말이오나 갓흔것흐고는실 다른데흔닐음인가오ー 나는말인가오ー 다른데흔닐음 으며 안이그런것이안이라 부

平壤郵便局 印紙竊取犯

임의과저흔바와갓치 평양우편국게셔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만팔쳔여원의 도난사건이잇슨이후 쇼할평양경찰셔에는 침식을이져바리고 범인수사에착수즁이던바 목포에셔 테포된 혐의자로브터 유력흔증거품을압슈흐얏슴으로써 평양셔의즁촌(中村)경찰부의좌동(佐藤)량형사부장은부산에급힝흐야 부산경찰셔외의원의 협력으로 이십삼일부산부미립신쳥 숑미려관에투숙흐든 석쳔더직(石川猪直)(二八)을데포흐야 취조흔바 석쳔더직이라흠은 젼혀거짓일흠이오 실상은 수하미남(數下梅男)으로 판명되야 동인의커 석쳔(石川)(二〇)파 그외지 혐의자로연치흐야 목하실녀되는 슈하모(二二)의량명 평양경찰셔에셔취조즁인디 미남은금일ᄭ지팔쳔여원의수입인지를문미흐얏셧다더라

全敏哲不起訴
경찰셔에셔넘어온소위범죄자들검사는무죄방셕

일본유학싱쳔민쳘(全敏哲)은하긔휴가를 리용흐야 조선각디방으로 도라나니면셔 강연을흐든바박쳔(博川)에셔강연흐는즁에 당디경관게게즁지명령을당흐고인치야 종로셔에 구류되얏다가 잇흘만지나셔검사국오로 넘어갓는딕 검사는사실을조사한결파불긔소(不起訴)가되야 즉시방셕되얏다더라

新義州署의 大活動
칠월이십칠일밤에 협의자다섯명을데포

부슨범인이신의주에 침입흐얏도지 당며경찰셔에셔는 칠월이십칠일청밤에 변안간쇠원찬동의비상소집을힝흐야 국비밀속에셔 디활동을 긔시흐고 파미섯명의협의자를 검거흐야 독호엄즁흔취데를 힝흐는중이라더라

多獅島築港說
팔월중순간에 창립총회개최

신의쥬거쥬흐는 유지인사들은 다사도(多獅島)에축항(築港)을목뎍을달흐고자흐야 긔셩동밍회(期成同盟會)를조직흐가도흐고 오는팔월중순에 창립총회(創立總會)를기최흐다더라(신의주)

妓夫廢止
칠월말일로위한흐고

죵릭로조선인유곽에는 남자기부(妓夫)가잇셧든바 파반에당국으로보터 기부폐지에디흐야 권고흐든바 지난달삼십일々외한흐고젼부폐지흐얏다더라

南門市場內에 行旅病者
죽은자는신사홍 오로판명되얏다

지나간삼십일일 오젼십시경에 남미창졍 청과시장으에 나히륙십이사셰가량되는 조선인한명이 병사흠을발견흐고본뎡경찰셔에 계흠흐는자가잇슴으로 본뎡경찰셔에셔는 강경보회쳔경찰의사가 현장에츌장흐야 검시흔결파 젼혀병으로쥭은바 그자는향샹의신사홍(申士弘)이라흐는자로 판명흐얏다더라

獨立團에重傷된 澤井巡査
의사의슈술도효험업시이내사망

칠월삼십일밤에 평안북도자셩군여면(平北慈城郡閭延面)에셔 죠선독립단과교젼흔 의 중상을당흔중강진경찰셔(中江鎭警察署) 쇼사부장 퇴졍(澤井)은여러가지수당을베푸럿스나 오모효과업시내죽어바렷다더라

前記兩報의報道가全然히事實無根한虛報 否認

本月一日每日申報第四千九百十四號第三面第十段欄内에 朝鮮日報社는尹德榮子가讓受라흔題下에 揭載된一切記事와 同月日京城日報第四千九百三十三號第二面第十段欄内에 朝鮮日報讓渡交涉이란題下에掲載된一切記事는前記兩報의報道가全然히事實無根한虛報인뎌려想像컨ᄃ何許雜輩가本報에對호야中傷코쟈虛言을做出호야如斯히新聞上報道々지되얏기玆에否認호와社告호오니愛讀僉位ᄂ照亮호시압쇼셔

朝鮮日報社 告白

朝鮮人産業大會 江原道委員

지나간칠월삼십일날 거힝흔 임시조선인산업대회(朝鮮人産業大會)발긔총회에셔 강원노위원의결뎡되얏든것을 본월일々 오후팔시 위원회에셔 리틔형(李台衡)씨로선뎡되얏다더라

苦學生救濟會와 仁川贊務員

경셩부져동빅십번디 고학싱구제회(苦學生救濟會)는 셜립된지 얼마되지안이흐야 그간은 그치에되흐야 한부원이십삼도가 구에 는고곳에 업셔 그수효가 만명이상에 달흐며 인쳔에도 찬무원김명제、홍셕범、우화、박녕하、리동호、하상훈、유명괴(金鼎濟、洪錫範、禹、朴、李東浩、河相勳、朱明址)씨등 구제회를위흐야 쥬야로부르는결파입회지원자가날노답지흐다더라

浦項海岸에 兩頭蛇
陰曆八月에는天地가震滅 무장흔경관은다수츌동 빅셩들은공연히딕쇼동

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랍인동(慶尙北道靑松郡縣東面納仁洞) 삼빅이십칠번디 셩쳔장사 셕종금정록(金正錄)(三四)은 칠월십일々을인흐야 인접된연일군포항(延日郡浦項)에 려힝흐얏던바 그곳에가는 사름마다떠드는 한흔번이가잇는딕 그것은 칠월팔일오젼십시경 포항히안에 돌연히 검은구름이일어나며 구름 에는 직경오촌가량、기리오쳑오촌빗스검은머리 두개가진 **큰비암이** 싸이여셔붊고 운동토흐는바이것을본 어부는 즉시쇼관경찰관쥬지쇼에보고흐야 동주지쇼로브터 우연니칠팔명의경관이츌동흐야 그부근빅셩들파련합흐야 북을울니며 쇼리를 크게흐야 그비암은북쇼리와동시에 바다로도망흐얏는디 그곳에잇는 로인의말을 드르면 그와갓치 큰비암이출현흐면 **큰흉년이** 들흥소어라흐며 오々로도란칠월 ... 마을인흐야 사뭄이만히싸여죽고가우는나 텬디가문허짐에이르리러라더라

中國 上海의酷暑
길에서쓰러져 죽는자가만타

요소이 즁국상히는 디방의 더위는 엇지더운지 근린에처음잇는일인ᄃ 칠월이십팔일은최고온도빅오도、동이십구일에는최고빅십일도에달흐얏고 더위로인흐야 상히에 중국인시가에는 지나가다가 그ᄃ로쓰러져죽는 사가 미일십수명의다수에달흔다더라(상히뎐)

元山에入港한 佛國水兵의行動
일본인상덤을부시고 또무수히압박히

칠월이십팔일원산에입항흔불난셔군함은 삼십일오후오홉시반부터슈병이회산되야 상륙흐얏는바 일인빙수뎜에들어노흔등을손의자리를부시며、란포흔힝동에닥치는뒤로셰트려바리고 다시엇던세탁옥(洗濯屋)의유리창아흠기를부시며、란포흔힝동을흐미 빙슈뎜쥬인이나와셔금지흐고자흐얏스나 슈병들은 그빙수뎜쥬인에 폭힝을더흐고자흠으로 보에잇든 사람들이 달녀드러 에워싸고 흔시동안격투흐는즁에 헌병이달녀드러 슈병들을허병이치흐얏는데 불국군함측청구에의지흐야 그날밤을 누시에 곱 함 에게인도흐얏다 그러나 그 다음날 ... 헌병경관위병(憲兵警官衛兵)이 발견흐고 붓들어취조흔즉 신의주에서 ... 슈병(新義州製 ...)에 ...흐얏든사실이판명되야 즉시그부인도흐얏다더라

溺死未遂
부부간에입닷흠흐고익사흐려

지나간칠월이십칠일오후열혼시경에 압독강텰교 족보도(步道)중앙으로부터 강에떠러지고자흐는 이십이삼세가량된미인 ...

露國人 一千萬名의飢饉
각디로단니며량식과 가츅등을약탈흐눈중

오라사々람의 긔근으로인흐야 이러는 폭동은요사이 더우기만연흐야인심이흉々흐딕 약의처 ...

家屋은建築이라면 便所도改良하시오
支局一記者

우리조선사람들은 입으로만긔기만흐지 한가지도실시흐는것은볼수가업다 수만원수천원의금젼을드려 가옥을건셜흐고나 가셔보면 변쇼는설계에도업고도면에도업스니 그런거나 그려치ᄂ이흐면 ...

乳兒壓殺
외인을간통하야 나은자식을죽여

츙쳥남도례산군례산면 ... 보의쳐박운학(忠淸南道禮山郡...)은 그남편이 일본으로가고업는동안에 작년칠월경부터 자긔집에고용으로잇는량쳥슈(梁正秀)와 ... 간통흐야 ... 잉티흐야 ... 싀골에셔 ... 나흔 ... 즉시어린아희를죽이여 ...

本夫를毒殺코저한 姦婦

젼남히남군문닉면우암리(海南郡門內面牛岩里)윤병긔의쳐 리안심(李安心)(二〇)은 동리 박창환、한자와슈년젼부터 간통흐야 ... 로략도며남이업시처미소는 현게살고져흐나 그는몸이 윤병과를、쉐상의두고도자긔마음디로흔자유가업슴으로 박창환파공모흐고 후쥐잡는약 비샹을 두번이나그남편되는 윤병긔밥에느엇스나 공교히그밥을아니먹게되여 다힝히싱병은업셧든디 흉악무도흔 리안심의범죄사실이 우수영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에게탐지되여 간부남녀를 히남경찰셔에 인치되여 동셔에셔 엄즁흔심문을맛친후 일젼광쥬디방법원장흥지쳥검사국으로 사건셔류와홈께압송되얏더라(광주지국)

미량훈변

쇼에ᄃᄃ 변쇼에ᄂ ... 우리조선사람은 ...

소변보기

... 역시변쇼가 ...

우리조션

...

문명훈사 ... **삼십넌선** ... **도로여위** ...

가장緊하고情답게밧어줄 한터름션사품은
朝鮮賣藥株式會社 — 消滯藥 —
登錄商標
靈神丸
—이第一이외다！—
滯症에는장위胃腸을健全케ᄒ야、장마지고무더운 險惡ᄒᄂ녀름에인집안食口를安過케ᄒ는ᄭ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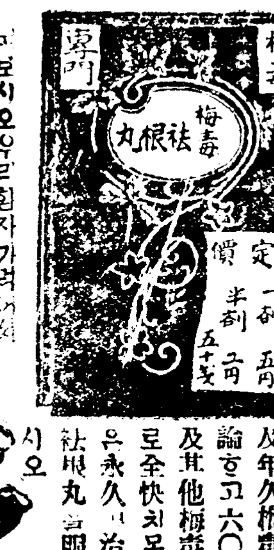
洋服實習生募集

本所에셔授學ᄒᄂ第一回生은八月一日卒業을授了ᄒ얏삽기第一回生徒二十人限ᄒ고 募集ᄒ오니海內有望諸位ᄂ 左記期日內로志願書를提出ᄒ심을務望ᄒ옴
志願書接受期日은自八月一日로至同十五日ᄭ지
規則書를請覽코자ᄒᄂ人士의게ᄂ返信料를要ᄒ옴

開城半島洋服實習所

◎淋疾梅毒患者大福音◎

本劑ᄂ五淋中엇더ᄒ림질이던지 其効如神ᄒ옴은先服諸氏가證明ᄒᆷ



本劑ᄂ二十三門及年久梅毒을勿論ᄒ고六〇六號及其他梅毒藥으로全快치못ᄒᆫ人은永久히治되ᄂ 祛根丸을服用ᄒ시오

이보시오우리회자가벼여셔 雲捲青天되게나으럽니다주시오

◎本舖 京城府積善洞百番地의三
漢城藥舘
振替京城六〇七三番

白髮 (七七)

青黃生

七七、멀기도멀다

「오ㅅ 엇저면 어려케도 고와 당신은 참말 나ㅅ잘히주엇슴니나」 하고 엽흐로 얼골을 넘여밀어 나를ㅅ키쓰ㅎ고 그냥 로 떠밀게 나에게 기대면서、반지셔」 손을 들어 그 팡치고 바라볼ㅅ러니 ……

少年野球大會事件 (八)

特히 培材學校에 對ᄒᆞᆫ 社會的 制裁에 關ᄒᆞ야

城北隱人

三、八校長의 決議文은 如何 (續)

女子青年會創立

陳列所竣成期

갈돕會巡劇團一行

張郡守上京

關東學友巡講消息

女子敎育會巡講團

吳錫杓氏의 美擧

美監理敎振興會

廣南青年倶樂部

學生大會巡講消息

嶠南第三團

西鮮第一團第五信

光進學校設立

平壤朱雀團遠征

避病院寄附金

謹告

以上合計八百六拾四圓也

累計四萬七千五百參拾圓六拾錢也

廣告

朝鮮日報 雄基支局

朝鮮日報 枇峴分局

朝鮮日報 沙里院支局 取次所 興水院驛前 取次所主任 金有善

신용잇는 미약은 경성광화문통 한약사와 보혜약방을 잇지마시요

延期廣告

本協會의第一回預約出版物朝鮮併合十年史附朝鮮獨立問題眞相을本年七月末日內로預約諸氏에게配達코자하엿사오나大多數에印刷物일뿐더러際此暑中하와印刷工場에業가多小間斷이不無ᄒᆞᆫ故로自然히預定ᄒᆞᆫ바와相違되와定期에發行치못ᄒᆞ고不得已今且延期되옴은本協會에셔도遺憾으로思ᄒᆞ나이다그러나晩하야도本年九月末日內로는必히配付ᄒᆞ겟사오니預約諸氏는以此照亮하심을望함

大正十年八月一日

京城西大門町二丁目二九番地

朝鮮出版協會 白

平和醫院

各科治療(往診及診察無料)

仁川府龍里一八六番地(鎭港社後二層洋屋)

醫師 金容彬 羅時極

優美館

新連續大活劇

特別廣告

本商會內의 地方販賣部를 特設ᄒᆞ고 引換代金으로 應酬

特別割引

京城仁寺洞六三番地

共和商會 靴工業部

廣告

近時世運의發展을隨ᄒᆞ야斯界의技術도顯著히進步된지라本人兄弟가多年村上天眞師의薰陶를受ᄒᆞ야修業을了ᄒᆞᆫ後東都에셔研究를重疊ᄒᆞᆫ結果今般左記場所에撮影場을新設ᄒᆞ옵고一萬燭의電光으로電氣應用採光法에依ᄒᆞ야撮影ᄒᆞ옵는바晴雨晝夜를不拘ᄒᆞ옵고酬應ᄒᆞ오니內外諸彦은一次試驗ᄒᆞ심을伏望ᄒᆞᄂᆞ이다

最新式電氣應用

京城府本町一丁目三十八番地(喜樂館西側)

東鄕兄弟寫眞館

電話一二三四六番

京城訓練院特産

白菜種廉價大販賣

京城東大門內再橋下

姜昌鎬菜種販賣店

太乙敎本部

我太乙敎는甑山姜先生(諱一淳)이佛仙儒三敎의眞理를研究하다가一朝에大道를悟ᄒᆞ고三敎一致의敎門을開홈이니則大啓를受ᄒᆞᆫ大靈命이라我等의闇蒙을啓ᄒᆞ고我等의心胸을淸하고我等의行爲를匡ᄒᆞ고我等의一生을永遠의幸福으로導ᄒᆞᄂᆞ니

◎宗旨 復元性、養精神、正倫綱

◎敎理 天理神理人理氣化形化神化

◎信條 事天修德愛隣濟衆救魂奉生

◎目的 宣布道德廣濟蒼生、以善治惡同濟文明、勸奬敎育力圖産業

來ᄒᆞ라우리敎徒여千萬年에亘ᄒᆞ도록不朽不磨不動不變ᄒᆞᆫ我敎道德의化圈中으로

京城府齋洞五十四番地

太乙敎本部

敎長 李榮魯

副敎長 蔡奉默